

# “복지국가도 실패한 ‘기본소득’... 쟁점은 ‘지속가능성’”

## 국민연금공단 기본소득 세미나

“직접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  
상향 조정시 재원조달 마련 가능”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도 실패했다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자격이나 조건 없이 동일하게 제공되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이 20일 오후 개최한 ‘기본소득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은 새로운 재·분배구조의 확립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평등한 사회의 부활을 위한 장기적 기획”이라며 “노동과 분리된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논란이 많은 정책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서울시의 청년수당,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책입안자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회복지학계, 여론의 생각은 각기 다르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과정도 많이 많았다.

논란의 중심은 재원조달방안이다. 김교성은 사회복지기여금을 포함한 부담률, 부가가치세율 등을 상향 조정하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직접세 부담률은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률은 2014년 기준 24.6%로 프랑스(45.2%), 독일(36.1%), 스웨덴(42.7%), 일본(30.3%, 2013년 기준), 미국(26.0%)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평균(34.4%)보다 낮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제도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10%의 정률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5%), 일본(8%), 칠레(8%)에 불과하다.

## 추가복지 재정 잠재력

/자료=김교성 중앙대학교 교수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조세부담률             | 17.5  | 17.7  | 17.7  | 17.9  |
| 국민부담률             | 23.9  | 24.0  | 24.1  | 24.2  |
| OECD 평균(2013)     | 34.1  | 34.1  | 34.1  | 34.1  |
| OECD 최고(2013)     | 48.6  | 48.6  | 48.6  | 48.6  |
|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조원) | 162.9 | 170.8 | 179.7 | 188.6 |
|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조원) | 231.6 | 245.2 | 260.5 | 276.3 |

김 교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 혹은 프랑스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정부의 세입 규모는 상당 부분 확대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율도 OECD의 평균(19.2%)에 가까운 약 20%로 상향 조정하면 상당한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실현성’이다.

지난 8월 공개된 핀란드 중앙당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예비보고서(2017~18년)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행복도를 높이는 등 일반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용 유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 2000명의 실업자를 임의로 선발해 그들이 직업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2년간 매달 56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만원

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저임금 직장이나 임시직 취업 등을 독려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 보고서는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해 비교 대상인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은 새로운 분배구조의 확립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평등한 사회의 부활을 위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KRX국민행복재단, KRX DREAM 장학생 부모자녀와 워크숍 가져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은 20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1층 아트리움에서 ‘KRX DREAM 장학생 부모자녀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예비 고등학생이 되는 서울지역 KRX 드림 장학생과 부모님 총 40명이 참석했다. ‘KRX DREAM 장학생 부모자녀 워크숍’에 참석한 조호현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동계출원 인공부처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 국산 장미 품종 한 자리에 모인다

### 농진청 내일까지 aT서 평가회 진행

농촌진흥청은 이달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서 평가회를 열고, 국산 꺾은꽃(절화) 장미 품종과 계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재배농가, 유통업체, 플로리스트 등 실무자들이 참석하며 평가 결과는 품종 육종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평가회에는 농진청에서 육성한 15품종과 우수한 30여 계통을 선보이며, 기호도 평가에 따라 시장성 있는 유망 계통을 최종 선발한다.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 중 장미 ‘09SR5-62’는 밝은 빨간색 스프레이 계통으로 일본 시장 수요에 알맞다는 평을 받아 앞으로 장미 재배 농가와 유통업체에 인기를 끌 전망이다.

꺾은꽃 수명이 길고 수량이 많아 인기가 많은 노란색 스탠드장미 ‘엘로우션’ 등 국산 장미도 소개된다.

현재까지 국산 장미는 200여 품종이 육성됐으며, 보급률은 2007년 4.4%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미 품종 ‘엘로우션’

2018년 30%로 꾸준히 늘고 있다.

품종 육성으로 절감한 사용료(로열티)는 2007년 약 2억2000만원에서 2018년 13억2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돼 지불액은 꾸준히 줄고 있다.

김원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은 “국산 장미 품종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외 품종에 의존하는 농가가 많은 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품종 개발과 우수한 국산 품종 홍보로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근로자 휴가지원’ 관심 폭발... 4.3만명 신청

### 관광공사 일주일새 3766개사 지원 인원 초과시 추첨 후 3월 중순 통보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인원이 4만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참여 신청한 기업은 3766개사며 인원은 4만3922명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2만658명(741개사), 소기업 1만4993명(1223개사) 소상공인 8271명(1802개사)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도

가능하다.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인 경우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참여 가능하다.

오는 3월 8일 신청 마감 후, 신청 인원이 8만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한다. 최종 결과는 3월 중순 통보한다.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풀에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8만여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전용 온라인 풀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가격 또한 동일할 수 있다. 롯데관광, 야놀자 등도 추가로 입점하며, 지속 확대하고 있다.

4월 전용 온라인 풀 오픈에 맞춰서 대대적인 상품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숙박 상품 및 테마파크, 워터파크, 체험시설 등 관광지 입장권, 그리고 패키지 여행상품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직접 기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식사, 교통, 입장권 등이 모두 포함된 국내여행을 만원에 참여할 수 있는 ‘만원의행복’ 이벤트를 4월부터 제공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휴가비 지원 뿐만 아니라, 전용 온라인 풀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지난 해 참여한 근로자 분들이 블로그 및 SNS 등에 남긴 후기를 보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사업개발 참여기관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9년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을 함께 할 민간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영역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이 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거나 공단에서 개발한 직무를 보급·확산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시각장애인 산후안마전문가, 발달장애인 산림지원가 및 에어컨 청소전문가, 정신장애인 펫(Pet)시터, 청각장애인 소프트웨어 테스터 등 5개 직무가 새로 개발됐다. 참여기관 신청은 3월 8일까지이며 신청기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올해 11월 말까지 공단과 함께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KT&G 초슬림에 풍부한 흡연감 더했다

### ‘디스 아프리카 썬데이’

KT&G가 ‘디스 아프리카’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작고 슬림한 제품인 ‘디스 아프리카 썬데이’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스 아프리카 썬데이’는 권련 두께가 5.4mm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께 7.8mm의 레귤러 사이즈 제품보다 컴팩트한 초슬림 사이즈로 제작됐다. 또한 ‘디스 아프리카’ 브랜드 특유의 풍부한 흡연감에 색다른 맛을 더한 점이 특징이다.

KT&G ‘디스 아프리카’ 브랜드는 2013년 9월 출시된 ‘디스 아프리카 롤러’를 시작으로 ‘디스 아프리카 폴라’, ‘디스 아프리카 아이스팩’에 이어 이번에 출시하는 ‘디스 아프리카 썬데이’까지 현재 네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 ‘디스 아프리카’는



디스 아프리카 썬데이

/KT&G

차별화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디스 아프리카 썬데이’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1.0mg, 0.10mg이며, 가격은 갑당 4500원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